

맨유 구단 팟캐스트 출연 박지성 “내 응원가 ‘개고기송’ 멈춰달라”

황희찬 울버햄턴 입단 발표때 팬들 열창
“아직도 개고기송 참담...한국은 달라졌다”



박지성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서 전성기를 보낸 박지성(40·전북 현대 어드바이저)이 일명 ‘개고기송’으로 불리는 자신의 응원가를 이제는 멈춰야 한다고 호소했다.

박지성은 4일(한국시간) 맨유 구단의 ‘UTD 팟캐스트’에 출연해 응원가에 대한 견해를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그는 “역사적으로 한국에선 개고기를 먹었다. 하지만 지금은 예전과 많이 달라졌다. 요즘 젊은 세대들은 개고기를 싫어한다”고 밝혔다.

박지성은 2005년부터 2012년까지 맨유에서 활약했다. 은퇴 후에는 맨유의 글로벌 앰버서더로 활동 중이다. 맨유 팬들은 박지성의 응원가로 ‘개고기송’을 불렀다. “박지성, 네가 어디에 있든 너희 나라에선 개고기를 먹지. 그래도 쥐를 먹는 리버풀보다는 나야”라는 내용이다. 라이벌 리버풀을 조롱하기 위한 응원가지만, 한국인과 아시아인에 대한 인종차별적 내용이 포함돼 비판을 받았다. 특히 8월 울버햄턴 원정경기에서도 황희찬의 입단 발표가 나오자 원정응원에 나왔던 맨유 팬들이 박지성 응원가를 불렀다.

박지성은 “한국선수가 맨유와 경기가 있던 날 울버햄턴에 입단했고, 맨유 팬들은 내 응원가를 불렀다. 아직도 개고기송을 부르는 걸 보고 이제는 목소리를 내야겠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 단어에 대해 선수가 불편을 느꼈을 수 있다. 15년 전 내가 느꼈던 것처럼 말이다”며 “맨유 팬들이 내게 나쁜 마음을 담아 그런 노래를 불렀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하지만 한국인들은 불쾌할 수 있다. 나 때문에 개고기송을 지금까지 듣는 후배에게도 미안하다. 이제는 그 노래를 멈춰야 할 시기”라고 강조했다.

최현길 기자 choihg2@donga.com

2년만에 돌아온 백승호 “매경기 이길 것”

전술적 이유로 배제됐던 백승호
“대표팀 오기 힘든 곳 감사할 뿐”
부상 관창훈 대신 발탁된 정우영
7개월만에 복귀 “더 많이 배울 것”

백승호(24·전북 현대)와 정우영(22·프라이부르크)이 2020도쿄올림픽 탈락의 아픔을 딛고 소속팀에서 맹활약하며 축구국가대표팀으로 돌아왔다.

시리아(7일 오후 8시·안산)~이란(12일 오후 10시30분·테헤란)과 2022카타르월드컵 아시아 최종예선(A조) 3·4차전에 나설 태극전사들은 4일 경기도 파주 국가대표트레이닝센터(NFC)에 모였다. 새로운 얼굴들이 발탁되진 않은 가운데 백승호, 정우영 등 반가운 얼굴들이 보였다. 백승호는 2019년 10월 월드컵 2차 예선 이후 2년 만에, 정우영은 올해 3월 일본과 평가전 이후 7개월 만에 대표팀으로 복귀했다.

2019년 3월 처음 파울루 벤투 대표팀 감독의 선택을 받은 백승호는 그해 6월 이란과 평가전을 통해 A매치 데뷔전까지 치렀다. 그러나 2019년 11월 벤투 감독은 전술적 이유를 들어 백승호를 선발하지 않았고, 지난해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국가대표팀의 경기가 제대로 열리지 않았다. 그 사이 다름슈타트(독일)에서 입지가 흔들린 백승호는 올해 전북으로 이적했다.

정우영은 올해 3월 처음 성인대표팀에 뽑혀 일본을 상대로 A매치 데뷔전을 치렀다. 당시 후반 시작과 동시에 투입됐지만, 이미 승부의 추가 기술었던 터라 0-3 완패를 막기엔 역부족이었다. 이후 6월, 9월 소집에서 부름을 받지 못한 그는 10월에도 최초 명단에선 제외됐다. 발목 부상을 당한 권창훈(27·수원 삼성) 대신 발탁됐다.

둘은 똑같이 올 여름 도쿄올림픽 최종 엔트리 탈락이라는 아픔을 겪었지만, 절치부심한 끝에 국가대표팀으로 당당히



10월 카타르월드컵 아시아 최종예선 3·4차전에 나설 축구국가대표팀에 발탁된 백승호(왼쪽)와 정우영이 4일 파주 NFC에 입소하고 있다. 도쿄올림픽 최종 엔트리에 들지 못했던 아픔을 공유하고 있는 백승호와 정우영은 이번 최종예선 2연전에서 진가를 보여주겠다는 마음가짐이다.



10월 카타르월드컵 아시아 최종예선 3·4차전에 나설 축구국가대표팀에 발탁된 백승호(왼쪽)와 정우영이 4일 파주 NFC에 입소하고 있다. 도쿄올림픽 최종 엔트리에 들지 못했던 아픔을 공유하고 있는 백승호와 정우영은 이번 최종예선 2연전에서 진가를 보여주겠다는 마음가짐이다.

사진제공 | 대한축구협회

돌아왔다. 시즌 초반 체력적 문제를 드러냈던 백승호는 후반이 들어 K리그에 완벽히 적응했다. 3경기 연속골을 포함한 맹활약으로 팀의 4연승에 앞장섰다.

정우영은 2021~2022시즌 모든 경기에 출전하며 프라이부르크의 무패행진(4승

3무)에 기여하고 있다. 그 덕에 대체 발탁의 기회를 얻었다.

백승호는 4일 소집 인터뷰를 통해 “대표팀은 정말 오기 힘든 곳인데 감사한 마음”이라고 복귀 소감을 전했다. 이어 “준비를 잘하면 기회가 올 것”이라며

“매 경기 이겨야 한다”는 각오를 덧붙였다. “대표팀에 들어오게 돼 영광”이라는 정우영은 “이번엔 어떤 축구를 원하고, 어떤 템포와 스타일을 추구하는지 더 많이 배워겠다”며 새로운 마음가짐을 강조했다.

이승우 기자 raul1649@donga.com

수원FC-제주-수원삼성-포항 파이널A행 3자리...한 팀은 추락

24일 최종전 판가름...승점 1점 남은 수원FC 유리

‘하나원큐 K리그1 2021’ 파이널라운드 그룹A(1~6위)의 남은 자리를 놓고 4팀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1~3위 울산 현대(승점 64), 전북 현대(승점 63), 대구 FC(승점 49)가 이미 파이널A를 확정된 가운데 나머지 3팀은 정규라운드 최종전에서 정해진다. 수원FC, 제주 유나이티드, 수원 삼성, 포항 스틸러스 중 1팀은 하위권에 묶여 시즌 막판을 보내야 한다.

가장 유리한 팀은 12승9무11패, 승점 45로 4위인 수원FC다. 파이널A를 확정하는 매직승점 ‘46’까지 딱 1점 남았다. 2일 울산전에서 무승부 이상의 결과를 얻었다면 장단 후 최고의 성과를 낼 수 있었다. 그러나 주포 라스에 대한 상대의 집중경제와 골키퍼 유현의 실수가 겹쳐 0-3으로 완패했다. 그럼에도 24일 정규라운드 최종전에서 최하위 광주FC를 홈에서 만나는 것은 긍정적이다.

제주는 위기를 극복하고 최근 반등했다. 8월 29일 FC 서울전 승리를 시작으로 6경기에서 5승1패다. 지난달 18일 치른 광주전 결과가 상대의 선수교체 규정 위반으로 인해 1-1 무승부에서 3-0 승리로 바뀌는 행운까지 겹쳤다. 3일 성남을 2-1로 꺾고 5위(승점 43) 자리를 지켰다. 10일 강원FC와 순연경기에서 이기면 일찌감치 파이널A를 확정할 수 있다.

6위 수원, 7위 포항(이상 승점 42)이 마지막 한 자리를 놓고 경쟁할 가능성이 높다. 수원은 2일 인천 유나이티드전(1-0), 포항은 3일 광주전(3-2) 승리로 마지막까지 순위싸움을 이어가게 됐다. 다텍전(수원 39골·포항 35골)에서 순위가 갈릴 정도로 접전이다.

24일 정규라운드 최종전 결과에 따라 운명이 달라진다. 수원은 대구 원정을 떠나고, 포항은 인천을 홈으로 불러들인다. 그룹A에 안착하면 내년 아시아축구연맹(AFC) 챔피언스리그 출전권까지 넘볼 수 있지만, 그룹B(7~12위)로 떨어지면 최악의 경우 강등까지 걱정해야 한다.

이승우 기자 raul1649@donga.com

편집 | 최혜경 기자 hk7048@donga.com

‘이란 몽니’ 사전차단...KFA, 내일 선발대 파견

식재료 현지 수급, 훈련장 등 점검
“외적변수 많아 안정적 환경 최선”

파울루 벤투 감독(포르투갈)이 이끄는 축구국가대표팀은 시리아(7일 오후 8시·안산)~이란(12일 오후 10시30분·테헤란)과 2022카타르월드컵 아시아 최종예선 A조 3·4차전을 앞두고 있다. 4일 경기도 파주 국가대표트레이닝센터

(NFC)에서 첫 훈련을 시작한 태극전사들은 1승1무로 아쉬웠던 9월 2연전의 부담을 떨쳐내야 한다.

시리아전도 걱정스럽지만, 이란 원정은 더 불안하다. 한국은 1958년 5월 도쿄아시아경기장에서 첫 대결을 시작으로 이란과 상대전적에서 9승9무13패로 열세인데, 마지막 승리는 2011년 1월 카타르 아시아컵 8강전이다. 특히 ‘원정팀의 무덤’으로 불리는 테헤란 아자디 스타디

움에선 최근 3연패를 포함해 2무5패로 크게 뒤진다.

그래도 카타르월드컵 본선에 오르려면 이번 테헤란 원정에서 승점을 확보해야 한다. 벤투 감독 역시 “2연승에 도전한다”고 말했다. 철저한 준비가 필수다. 대한축구협회(KFA)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시국에서 원정의 안전을 도모하고 피로누적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세기를 준비 중이다.

여기서 끝이 아니다. 약속된 숙소, 훈련장을 갑자기 변경하는 등 혼란 이란의 몽니를 사전 차단하기 위해 선발대를 파

견한다. KFA 대회기술본부 산하 부서인 ‘월드컵 프로젝트’ 리더와 전담조리장이 시리아전도 보지 않고 6일 테헤란으로 떠난다. 식재료 현지 수급과 숙소 점검, 경기장 및 훈련장 컨디션 체크 등이 임무다. 태극전사들의 선전을 도모하려면 직접 눈으로 보고 미리 챙겨야 하기 때문이다.

대표팀 스태프는 4일 “이란은 경기 부담도 적지 않지만 외적 변수도 많다. 최대한 안정적인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남정현 기자 yoshike3@donga.com

‘몰수패 입장’ 연휴에 발표한 KFA...불리하면 입 다무는 수뇌부

취재파일

항상 이런 식이다. 한국축구를 총괄한다는 조직은 이번에도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았고,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며 여론이 잠잠해지기를 기다린다.

대한축구협회(KFA) 심판평가소위원회는 지난달 18일 광주FC-제주 유나이티드의 K리그1(1부) 30라운드 경기에서 나온 ‘광주의 몰수패(0-3)’에 대한 입장을 공개했는데, 역시 예상대로였다. 부연 설명 한 줄 없이 달랑 “후반 추가시간 2분, 광주 김봉진의 교체 투입은 규정 정한 교체횟수를 초과했기에 교체를 허용하지 않았어야 함”이라고만 밝혔다.

올 시즌 K리그1은 하프타임을 제외하고

3차례 선수를 바꿀 수 있다. 광주는 후반 39분 2명(김종우·김봉진)의 동시 투입을 준비했으나, 대기심은 미리 준비한 김종우의 투입만 허락했다. 광주가 마지막 교체 신호를 보내자 대기심은 “다음에 교체하라”고 했고, 종료 직전 김봉진이 필드를 밟았다.

규정 위반 사실을 인지하고도 교체를 강행한 광주는 책임을 졌다. 제주의 이의 제기 후 한국프로축구연맹은 K리그1 대회요강 제20조 2항에 따라 김봉진을 무자격 선수로 판단하며 광주의 몰수패를 결정했다. 반면 KFA는 규정도 몰랐던 심판의 징계는 공개하지 않았다.

세삼스럽지도 않다. 온갖 판정 시비를 일으키고도 ‘그들만의 세상’을 사는 심판들은 과오가 외부에 알려지는 것을 극도로

꺼린다. 방구 권 이가 성내는 폴사나운 장면이다.

발표시점도 당혹스럽다. 대체공휴일이 붙은 연휴 첫 날(2일) 오전이다. 경기 후 12일이 흐른 지난달 30일 심판소위가 열렸지만, 발표는 이를 뒤였다. 일부러 여론의 주목도가 떨어진 시기를 발표시점으로 택했다는 의심을 피할 수 없다. KFA는 추석 연휴로 30~32라운드를 몰아서 평가했다고 하나, 사실이라면 더 한심하다. K리그 1은 한가위 연휴 2경기씩 치렀다. 직원(구단)들은 업무를 하고, 책임자는 연휴를 즐겼다.

KFA는 지난해부터 K리그 운영 및 교육 등의 권한을 가져가 집중적으로 관리해왔다. 하지만 논란은 반복돼왔다. 프로축구연맹이 관리했을 때와 비교해도 나아진 게

없다. 오심은 늘었고, 민감한 사안에 맞춰 이뤄진 미디어 브리핑은 아예 없었다. “이러려고 권한을 가져갔나?”라는 비아냥거림이 나오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이번 건이 아니라도 KFA의 행보는 낱제다. 정몽규 회장이 새 임기를 시작하고 신입 집행부가 구성된 뒤 잡음이 끊이지 않는다. 2020도쿄올림픽 대표팀 단장을 ‘비임원급’ 인사에게 맡기며 스스로 정관을 어겼고, 그간 호평 받았던 발령별 대표팀 감독 선임 절차 등으로도 질타를 받았다.

그런데도 정 회장과 수뇌부는 뒤로 꼭 숨은 채 입을 열지 않는다. 몰수패란 K리그 초유의 사태에도 꿈쩍하지 않는다. 대체 어디까지 파장이 번져야 잘못을 인정할까. 변명은커녕 “유감스럽다. 책임을 통감한다” 따위의 뻔한 립서비스조차 없는 KFA의 태도가 참으로 기막하다.

남정현 기자 yoshike3@donga.com